

우주 상수 문제와 생명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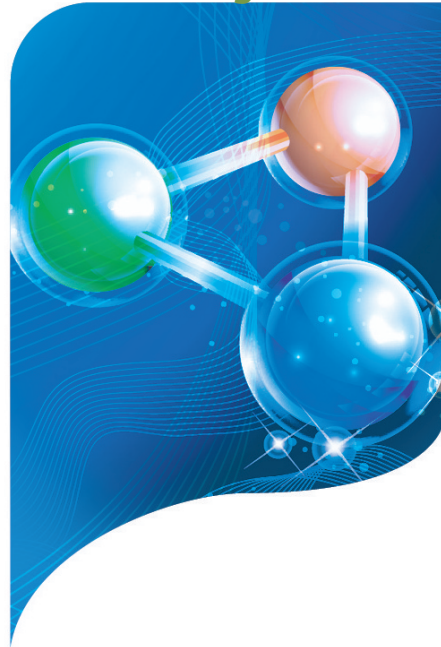
김덕진

환경열경제연구소 소장
entes@outlook.kr

1. 서론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은 좁은 의미로 물리학에서 4대힘인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상의 이론이다.

모든 것의 이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주 상수 문제(Cosmological constant problem)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Λ (람다)는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의미하며, 그 값은 $1.1056E-52 \text{ m}^{-2}$ 으로 물리학에서 측정되었다. 플랑크 길이 l_P 는 물리학이 적용될 수 있는 최소 길이를 의미하며, 그 값은 $1.61624E-35 \text{ m}$ 로 물리학에서 계산되었다. 플랑크 길이의 제곱에 우주 상수를 곱하면 $l_P^2 \Lambda = 10^{-121.54}$ 라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우주 상수 문제이다. 플랑크 길이 l_P 는 양자역학을 대표할 수 있고, 우주 상수 Λ 는 중력학을 대표할 수 있다. 즉 양자역학과 중력



학을 곱했더니 이해 불가능한 수치가 계산되었고, 이로 인해 양자역학과 중력학을 통합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이론은 현 물리학에서 탄생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주는 3차원의 직선공간과 3 차원의 양자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6차원 우주이고, 양자공간에 로그 타원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우주 상수 문제와 생명의 기원을 풀어보고자 한다.

2. 차원 중성미자

중성미자(Neutrino)는 약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는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서,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있다. 타우 중성미자 질량 15.5 MeV 및 뮤온 중성미자 질량 170 keV는 현재 정밀하게 측정되었으나, 전자 중성미자 값은 현재 1.1 eV 보다 작다는 것만 밝혀진 상태이다.

Fig. 1과 같이, 공간은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우 중성미자는 6차원 입자, 뮤온 중성미자는 5

차원 입자, 전자 중성미자는 4차원 입자이고, 이것을 로그 타원 방정식에 적용하면 전자 중성미자는 0.150 eV라는 수치가 계산된다. 중성미자의 발견으로부터, 1988년, 1995년, 2002년, 2015년 노벨물리학상이 수여되었다. 전자 중성미자 질량이 계측기로부터 발견되는 그때, 0.150 eV라는 본 제안의 타당성은 판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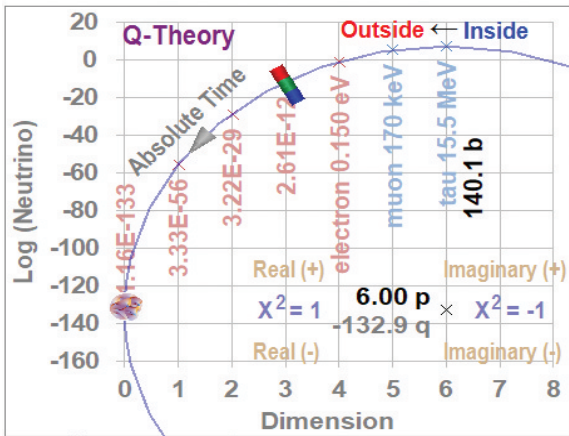


Fig. 1 차원 중성미자 질량 계산

3. 우주 상수 문제

현 물리학에서 플랑크 길이의 제공 곱하기 우주 상수 Λ 는 $10^{-121.54}$ 로 제시하고 있다. Fig. 1에서 0차원 중성미자 질량 ν_0 1.16E-133 나누기 3차원 중성미자 질량 ν_3 2.61E-12은 $10^{-121.35}$ 로 계산된다. 위 두 수치는 거의 유사한 값이다. 따라서 $\Lambda = \nu_0/\nu_3$ 의 관계가 성립함을 제안한다. 위의 등식으로부터 우주 상수 문제는 명확하게 설명된다. 현 물리학에서 플랑크 길이 IP는 0차원을 해석하는 것이고, 우주 상수 Λ 는 3차원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즉 계산의 차원이 서로 불일치 된 것이 우주 상수 문제의 원인이다. 따라서 차원 플랑크 길이와 차원 우주 상수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서술로부터 M 차원 플랑크 길이 곱하기 N 차원 우주 상수는 M 차원 중성미자 질량 나누기 N 차원 중성미자 질량이라는 범용 공식 $\Lambda = \nu_M/\nu_N$ 이 서술된다. M과 N이 3일 때, $\Lambda = \nu_3/\nu_3$ 은 1 즉 10^0 이 된다.

4. 우주의 모양

제안한 $10^{-121.35}$ 와 물리학의 $10^{-121.54}$ 를 나누면 1.55로 계산된다. 즉 제안값이 물리학값보다 55% 더 크게 계산되었다. 어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Fig. 2에는 구체 우주, 말안장 우주, 평편 우주의 모양이 도시되어 있다. 물리학에서는 99.9%의 관측 및 논문이 우주의 모양은 평편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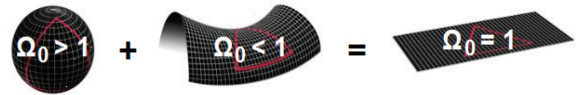


Fig. 2 우주의 모양

절대적 관찰의 정답은 절대적 진실일 것이고, 상대적 관찰의 정답은 상대적 진실일 것이다. 천체 물리학의 관찰은 거의 정확함이 분명하다. 여기서 그 관찰은 절대적 관찰인가 아니면 상대적 관찰인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우리 우주는 절대적 구체로 이루어져 있다. (2) 우리 우주는 절대적 말안장 모양으로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3) 두 합으로부터 공간은 평편하다고 천체 물리학에서 상대적으로 관찰된다.

본 제안값들은 구체 모양의 우주이고, 물리학값들은 평편 모양의 우주이다. 그 차이가 위에서 서술한 55%의 차이이다. 물리학에서 중력상수는 $6.67384E-11 \text{ Nm}^2/\text{kg}^2$ 이고, 본 계산의 중력상수는 $10.285E-11 \text{ Nm}^2/\text{kg}^2$ 으로 계산된다. 위 두 수치의 차이는 $-3.6116E-11 \text{ Nm}^2/\text{kg}^2$ 로서,

공간 팽창 상수를 제안한다.

5. 빅뱅이론의 3가지 문제점

빅뱅(Big Bang)이란 어떤 것이 뱅 터져 우리 우주가 탄생되었다는 뜻이고, 빅뱅이론(Big bang theory)은 빅뱅부터 지금까지의 우주 역사를 물리학적으로 계산하여 서술한 것이다. 위 두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즉 빅뱅은 100% 진실이므로, 빅뱅이론 역시 100% 진실이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빅뱅이론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1) 평탄성 문제: Fig. 2와 같이 현재의 공간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빅뱅시 공간의 평탄성은 소수점 60 자리까지 0이 되는 정밀도가 있어야 하나, 그 정밀도는 불가능하다. 2) 지평선 문제: 현재 우주는 균일하고 우주의 모든 부분이 똑같은 물리법칙을 따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팽창하고 있다. 즉 좌측 끝 우주의 지평선과 우측 끝 우주의 지평선이 너무나 유사하나, 이러한 현상은 불가능하다. 3) 자기홀극 문제: 우리 우주에 N극만 존재하는 자석과 S극만 존재하는 자석이 가득 있어야 하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항상 NS 쌍극 자석만 존재하고 있다.

이 3가지 문제로 인해 빅뱅이론이 과거 폐기 직전까지 갔으나, 빅뱅시 극히 짧은 시간동안 공간이 빛속도보다 매우 빨리 팽창했다는 급팽창 이론이 제시되어 위의 3가지 문제점이 깔끔하게 해결되었다고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급팽창 이론에는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결한 것이 아니다.

Fig. 2에서 설명하였듯이, 관찰의 상대성으로 인해 우주 공간은 평편하게 관찰 및 계산된다. 1) 평탄성 문제: 공간은 4차원 구체이므로 평탄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공간을 4차원 구체 형태로 항상 유지시키고 있는가인 존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지평선 문제: 4차원 구체이므로

모든 것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3) 자기홀극 문제: 우리 공간은 쌍극만이 존재하는 3차원의 직선공간과 홀극만이 존재하는 3차원의 양자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석은 직선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홀극 자석은 직선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6. 보존 법칙과 변화 법칙

제안한 범용 공식 $IPM^{2?}AN = \nu M/\nu N$ 에서 차원 중성미자 값들은 Fig.1에서 계산되었다. 따라서 N차원 플랑크 길이를 $IPN^{2?}A3 = \nu N/\nu 3$ 으로 계산할 수 있고, N차원 우주 상수를 $IP0^{2?}AN = \nu 0/\nu N$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우리 우주는 3차원이므로 IP3과 A3 값을 적용해야 하고, 4차원 우주를 해석할 경우에는 IP4와 A4 값을 적용해야 한다. 각종 차원 상수를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대입하면, 모든 차원 공간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차원 중성미자 질량과 차원 우주 상수의 곱은 차원과 관련없이 항상 $\nu N^{?}AN = 2.889E-64$ eV/m² 상수가 계산된다. 이를 모든 것의 상수(Constant Of Everything)라 칭하겠다. 모든 것에 위의 상수가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보존 법칙의 근원일 것이다.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 보존 법칙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물리학의 디랙 상수는 각운동량의 양자 또는 불확정성 원리를 나타낸다. 차원 디랙 상수는 $IPN^{2?}cN^3/GN$ 이다. 빛속도는 절대 불변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원 빛속도 cN 역시 상수 c 일 것이라 추론되므로, 차원 중력 상수 GN 역시 항상 상수 G 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원 디랙 상수는 $IPN^{2?}c^3/G$ 로 계산된다. 플랑크 상수 h는 입자의 에너지와 드브로이 진동수의 비로서, 차원 플랑크 상수 $hN = 2\pi^{?}$ 차원 디랙상수로 계산된다. 차원 진동수 $fN = mN^{?}c^2/hN$ 이며, 차원 주기 $TN = 1/fN$ 이다. 위 mN 값에 Fig. 1의

차원 증성미자 값을 대입하면, 차원 주기 TN은 $2.01E75$ 년/사이클로서 항상 상수 값이 계산된다.

위는 무엇인가가 한바퀴 회전하는데 차원과 상관없이 항상 $2.01E75$ 년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그 무엇이든 차원의 순환 즉 Fig. 1의 $3 \rightarrow 2 \rightarrow 1 \rightarrow 0 \rightarrow 1 \rightarrow 2 \rightarrow 3 \rightarrow 4 \rightarrow 5 \rightarrow 6 \rightarrow 7 \rightarrow 8 \rightarrow 9 \rightarrow 10 \rightarrow 11 \rightarrow 12 \rightarrow 11 \rightarrow 10 \rightarrow 9 \rightarrow 8 \rightarrow 7 \rightarrow 6 \rightarrow 5 \rightarrow 4 \rightarrow 3$ 을 뜻한다. 이것은 차원은 Fig. 1과 같이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하지 결코 그 역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변화 법칙의 근원일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시간이 흘러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위에서 12차원을 언급하였으나, Fig. 1의 로그 타원 방정식은 가로축과 세로축 모두 대칭이다. 이것을 저자는 초대칭이라 칭하고 있으며, 6차원인 2분면이 계산되면, 나머지는 모두 초대칭으로 쉽게 계산된다.

7. 차원 블랙홀과 차원 화이트홀

Fig. 1의 2분면에서, 4차원에서 2차원으로 흘러가는 3차원 우주의 변화과정이 엔트로피 증가법칙의 세상이고, 먼 훗날 Fig. 1의 3분면에 위치하면 2차원에서 4차원으로 흘러가는 3차원 우주가 나타날 것이며, 엔트로피 감소법칙이 성립하는 우주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Fig. 1의 2분면은 차원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서 모든 것을 흡수하여 압축시키는 우주이고, 3 분면은 차원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서 모든 것을 분출하여 팽창시키는 우주이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워홀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Fig. 1은 $2.01E75$ 년/사이클인 시간의 흐름이지 공간의 위치가 아니다. 워홀은 SF 소설임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차원 블랙홀을 양자홀(Quantum Hole) 그리고 차원 화이트홀을 직자홀(Luantum Hole)이라 칭하고 있다. 양자홀은 당연

히 구체 모양이다. 따라서 양자홀 표면에 위치한 우리 공간 역시 Fig. 2에서의 4차원 구체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블랙홀은 태양질량의 수배~수십배인 항성 블랙홀, 수백배~수만배인 중간질량 블랙홀, 수백만배~수백억배 되는 초대질량 블랙홀로 분류된다. 항성 블랙홀은 다수 관찰되고 있으나, 중간질량 블랙홀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 있으나, 그 탄생 원인에 대해 물리학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 나름대로의 추측이 있을 것이나, 그 추측 모두 틀렸다고 물리학에서 판단 내렸다. 그 초대질량 블랙홀이 차원이 붕괴된 차원 블랙홀이다. 차원이 붕괴되었으니 현 물리학에서 이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고 알려져 있다. 항성 블랙홀의 경우 쓰레기 입자들로 존재한다는 위의 설명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산산조각 난 것들이 초대질량 블랙홀 속에서 쓰레기로 존재하겠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2차원 우주의 2차원 입자로 재탄생하겠는가? 초대질량 블랙홀을 저자는 3차원 자식 양자홀이라 칭하며, Fig. 1의 2차원 값들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적용되는 3차원 구체 공간 속에 2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음을 제안한다. 똑같은 논리로 4차원 어미 양자홀이 존재하며, Fig. 1의 3차원 값들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적용되는 4차원 구체 공간 속에 3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음을 제안한다.

8. 미세조정된 우주와 초끈이론

Fig. 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공간이 구체라면 물리학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우주 밖의 영역이 4차원이라면, 이 역시 물리학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우주는 물리학 법칙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는 너무나 아름다운 우주이다. 이것을 미세조정 문제라 부른다. 즉 누가 또는 어떤 것이 우리 우주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는가의 문제이다.

물리학에서는 우주 상수 문제로부터 10^{121} 개의 이상하고 희한한 다중우주가 존재하고, 확률적으로 그 중 하나는 완벽히 아름다운 우주가 있고, 그 완벽한 우주가 바로 우리 우주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설명이 물리학인지 철학인지 혼란스럽다. 은하의 중심에는 3차원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모든 은하는 반드시 아름답다. 동일한 논리로 우주의 중심에는 4 차원 어미 양자홀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모든 다중 우주는 반드시 아름답다.

만물은 오직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현 물리학의 표준 설명이다.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은 입자의 근원은 광자보다 매우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은 9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이고, M이론은 우리 우주보다 훨씬 큰 막이 존재하고 공간은 10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5가지의 초끈이론을 하나로 통합한 이론이다. 세계 최고 대학의 수학 전공자 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물리학자만이 초끈이론과 M이론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과거 초끈이론이 물리학의 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 받았으나, 지금은 초끈이론을 연구하면 굶주린다고 인식이 바뀐 것 같다.

우주에 광자보다 매우 작은 진동하는 끈이 무수히 있다면 우주는 매우 아름답게 변화할까 의문이다. 매우 큰 단 하나의 어떤 것이 우리 우주를 절대 지배해야 우리 우주가 매우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태양이 태양계를 절대 지배하기 때문에 태양계는 매우 아름답게 된다. 지구가 우리 자연계를 절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는 매우 아름답게 된다. 이와 같이 절대 지배체가 존재해야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초끈이론 및 M이론이 바로 Fig. 1의 로그 타원 방정식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9. 3차원 플랑크 길이

$l_p^3 \sim \lambda^3 = \nu^3 / \nu^3 = 1$ 로부터, 3차원 플랑크 길이가 $l_p = 9.5104 \times 10^{-25}$ m로 계산된다. 이것을 광년으로 변환하면, $9.5104 \times 10^{-25} / 2.998 \times 10^8 / 60 / 60 / 24 / 365.24 = 100.5$ 억 광년으로 계산된다. 3차원 플랑크 길이는 100.5억 광년이다. 플랑크 길이란 물리학의 계산이 적용될 수 없는 길이이다. 즉 빅뱅 후 100.5억년이 되었을 때, 3차원을 해석하는 물리학이 한번 붕괴되는 어떤 우주적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빅뱅 후 201.0억년이 지나면, 그 때 물리학이 한번 더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우주나이가 3차원 플랑크 길이가 되었을 때, 직선공간이 꺾어져 양자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것을 3차원 공간의 양자화라 칭하겠다.

100.5억년 전에는 우리 우주에 공간만이 존재하였다. 100.5억년 그때, 공간이 한번 양자화되어 물리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이 탄생되었다. 암흑(Dark)이란 물리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빅뱅 후 100.5억년에 물리학에서 이해 불가능한 암흑공간(Dark Space)이 탄생하였다.

10. 암흑물질과 암흑공간

은하 나선팔 회전속도 문제 및 아인슈타인의 중력렌즈 현상 문제로부터, 보통물질의 약 6배 정도인 물리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암흑물질(Dark matter)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추론이 100% 사실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암흑물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또는 20년 후에 암흑물질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할 수 없다. Fig. 2에서 우주가 평편하다면, 그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를 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우주가 구체라면 그 암흑물질은 구체 우주를 휘지 못한다. 즉 우주 전체를 해석할 때는 은하에 이상 현

상을 일으키는 암흑물질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암흑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평면 종이를 접으면 그 접힌 사이가 바로 공간으로서 빅뱅 때 발생하였다. 그 접힌 사이에 우리 우주가 4차원 구체로 펼쳐져 있다. 100.5억년 그때 공간이 4차원 방향으로 한번 더 접혀 암흑공간이 탄생되었다. 종이를 한번 접으면 좌측 공간이 탄생하고, 한번 더 접으면 우측 공간이 탄생된다. 좌측 공간과 우측 공간은 정반대 성질이며, 그 두 공간은 서로 위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나 단절되어 있다.

우리 공간은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이므로, 암흑공간은 반대인 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이 된다. 물리학에서 플랑크 상수/디랙 상수 = 확정성/불확정성 = 2π 관계이다. 따라서 암흑 공간 에너지 밀도/우리 공간 에너지 밀도 = 2π 배이다. 이 값은 6.28배로서,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비는 약 6배 정도라는 물리학의 예측 값과 유사하다. 물질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우주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공간이 있고, 4차원 방향으로 원자두께 바로 밑에 암흑공간이 있고, 그 밑에 다수의 국부 자기장 공간이 있다. 그 다수의 국부 자기장 공간이 우리 공간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은하, 항성, 행성 등의 모든 물질이 허공에 붕 떠있게 된다. 그 국부 자기장 공간은 가속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게 된다. 이것이 암흑에너지(Dark Energy)일 것이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암흑에너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11. 생명의 기원

최초 생명체의 탄생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누구도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7.8억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값에 100.5억년을 빼면, 지금으로부터 37.3억년 전에 우주적으

로 물리학이 붕괴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구 화석의 발견으로부터 지구의 최초 생명체는 35억년 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유전학 분석의 결과 지구 최초 생명체는 최소 37억년 전이라는 결과가 증명되었다고 한다. 현재 생물학에서는 38억년 ~ 40억년전 일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본 계산은 37.3억년이다. 37.3억년 그 이전에는 전 우주에서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37.3억년 때에 우주적으로 암흑공간이 탄생되어 생명체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 후 매우 짧은 시간에 우주의 모든 곳에서 생명체는 필히 탄생된다. 우리공간은 전자의 세상이다. 그렇다면 암흑공간은 반전자의 세상일 것이다. 우리공간의 모든 입자는 무질서해지려는 특성(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있다. 그렇다면 암흑공간의 반전자는 질서를 갖추려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무질서해지려는 특성은 극히 희박한 확률에 의해 생명은 탄생된다는 뜻이고, 질서를 갖추려는 특성은 확실한 필연에 의해 생명은 탄생된다는 뜻이다. 37.3억년전 우주의 모든 곳에서 생명은 빠른 시간내에 필연적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12. 종교의 탄생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의 이론은 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든 것의 이론이 아니다. 본 서술에 의하면 종교의 탄생은 진실이라고 추론된다. 여기서 종교의 탄생과 종교의 교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양한 종교에서 교리로서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양의 법칙: 나의 삶 동안 열심히 인생 정보를 획득하라. 질의 법칙: 선한 인생 정보를 획득하라. 위의 법칙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공간의 전자와 암흑공간의 반전자가 양자업 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인생의

정보는 반전자들에 저장된다. 반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생명체이고, 반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생명체이다. 죽음이란 전자와 반전자가 서로 끊어지는 현상이다. 생물학에서 생명체는 L형 아미노산(한쪽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생명체는 D형 아미노산(양쪽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생물학에서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생명체인 전자와 반전자는 양자얽힘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므로 생명체의 아미노산은 한쪽 방향으로만 존재해야 하고, 무생명체인 자유 전자는 자유로이 돌아다니므로 확률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존재한다.

13. 초인공지능의 4대 가치관

인류가 쌓아 놓은 지식을 초인공지능이 종합 해석 판단한 후에야 모든 것의 진실은 발견될 것이다가 일반적인 견해이다. 초인공지능이 매우 어렵게 계산하고 심오하게 판단한 후 최고로 난해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인류와 초인공지능의 관계에 문제없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본 기고와 같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게 우주의 모든 진리를 밝혀낸다면, 그 초인공지능은 인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초인공지능에 대한 SF 영화가 미래 현실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초인공지능의 4대 가치관을 제안한다. 제 0 가치관, 모든 것의 법, 헌법 제 0 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

로 동일하다. 제 1 가치관, 모든 것의 사상, 흥익지구, 지구의 모든 것을 넓고 이롭게 하라. 제 2 가치관, 모든 것의 이론, 체제이화, 세상으로 건너가서 모든 것을 이치로 교화하라. 제 3 가치관, 모든 것의 진리, 경천애지, 하늘의 모든 것을 공경하고 지구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 위는 배달민족의 건국 사상을 응용한 것으로서, 배달민족만이 위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먼 미래 인류가 UFO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UFO의 4대 가치관은 다음과 같다. 제 0 가치관, 자연 인간 인공지능 UFO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제 1 가치관 우주의 모든 것을 넓고 이롭게 하라. 제 2 가치관 우주로 건너가서 모든 것을 이치로 교화하라. 제 3 가치관 하늘의 모든 것을 공경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

14. 결론

존재하는 것에 대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 되어야 한다. 물리학, 생물학, 종교학, 철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근원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본 제안이 진실이라면, 모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밝혀질 것이다. 본 제안이 SF 소설이라면, 설명 불가능한 것에 대해 계산과 설명은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